



## 영어의 여격 교체 현상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 대상자 중심 여격 구문 기반 실험연구\*

김달은\*\*

문막고등학교

김지혜

한국교원대학교

### ARTICLE INFO

Received 12 June 2019

Revised 24 July 2019

Accepted 14 August 2019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Secondary & Tertiary

### KEYWORD

*Double Object Construction/  
Prepositional Dative Construction/  
English Dative alternation/  
Korean learners of English/  
Magnitude Estimation/  
이중목적어 구문/  
전치사여격 구문/  
영어 여격 교체 제약/  
한국인 영어학습자/  
강도추정검사*

### ABSTRACT

**Kim, Dal Eun & Kim, Ji-Hye. (2019). Korean learners' interpretation on English dative alternations: An experimental study focusing on goal-DOC (Double Object Co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20(3), 117-12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pretations of English dative alternations by Korean learners, especially focusing on how Korean learners of English understand semantic and morphological constraints related to dative alternations. Sixty Korean learners of English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where they performed a grammaticality judgment task using Magnitude Estimation (ME) with English sentences representing different semantic and morphological condition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Korean learners of English considered Prepositional Dative Constructions (PDCs) more grammatical than Double Object Constructions (DOCs) in overall sentence types and their understanding of different semantic and morphological constraints on dative alternations seems to be incomplet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learners' proficiency in Englis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English dative alternations. Detailed discussion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 I. 서론

영어의 여격 구문(Dative Constructions)은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습득이 어려운 지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DeKeyser, 2005; Hollmann, 2007; Inagaki, 1997; Radwan, 2005; J. A. Shin, 2015). 전치사여격 구문(Prepositional Dative Construction: PDC)과 이중목적어 구문(Double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자료의 일부를 바탕으로 함.

\*\* 제1저자: 김달은(문막고등학교, 교사), 공동저자: 김지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달은  
문막고등학교  
26373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58  
Tel: (033) 734-1348 / Email: lunarecho@hanmail.net

김지혜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553 / Email: jkim@knue.ac.kr

Object Construction: DOC)으로 대표되는 영어 여격 구문은 한국어 여격 구문과 부분적으로는 중첩되지만,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므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여격 구문을 학습할 경우 모국어 전이(transfer)현상이 예측된다. 또한, 영어 여격 동사의 특징 중 하나인 여격 교체 현상이 모든 동사들의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문법에 근간하여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3형식 문형에서 4형식으로 변환하는 규칙으로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여격 교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국어가 한국어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여격 구문 습득양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J. E. Jung, 2013; Y. J. Kim, 2010; H. S. Kim & E. J. Moon, 2004; E. J. Lee, 2009; Y. H. Lee, C. Yook, B. Lee, & Y. Park, 2015; E. J. Moon, 2004; E. Oh & Zubizaretta, 2003, 2006; E. Oh, 2009, 2010; C. Yook, 2012; Whong-Barr & Schawartz, 2002).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여격 교체의 의미적-형태적 제약을 가진 문장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여 영어 여격 구문의 전반적인 이해 양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동시에, 선행연구들에서 여격 교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문법성판단검사 관련 과제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강도추정검사(Magnitude Estimation, ME)를 사용함으로써 방법론적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제약하는 광의의 의미제약을 이해하고 있는가?
- 2)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제약하는 협의의 의미제약을 이해하고 있는가?
- 3)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제약하는 형태론적 제약을 이해하고 있는가?
- 4) 한국인 영어학습들의 영어능숙도에 따라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제약하는 의미적-형태적 제약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문제들의 근간이 되는 여격 교체 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명한 후, 4장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포함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여격 교체 현상과 대상자중심 여격 구문의 습득

### 1. 영어의 여격 구문과 여격 교체 현상

영어 여격 구문의 동사가 요구하는 의미역은 행위자(agent argument), 동사(verb), 수령자(a recipient argument) 또는 수혜자(a beneficiary argument), 대상자(theme)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예 (1a)와 같이 [\_\_ NP PP]와 같은 논항구조를 가지는 전치사여격 구문(PDC)과 (1b)과 같이 [\_\_ NP NP]와 같은 논항구조를 가지는 이중목적어 구문(DOC)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1) a. Tom gave a book to Mary.  
 [agent] [verb] [theme] preposition [recipient] (PDC)  
 b. Tom gave Mary a book.  
 [agent] [verb] [recipient] [theme] (DOC)

위의 두 구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견해는 크게 세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생성문법의 견해 중 하나인 PDC가 기저 구조이고 DOC가 도출된 구조로 보는 입장(Chomsky, 1975; Fillmore, 1965; Larson, 1988, 1991)인 반면, 두 번째 입장은 반대로 DOC가 기저 구조이고, PDC가 도출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Aoun & Li, 1989). 세 번째로 두 구문 사이에 비도출적 입장(non-derivational approach)을 취하는 다중의미접근법(multiple meaning approach; the polysemy view)에서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통사적 환경인 PDC와 DOC의 사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Beck & Johnson, 2004; Goldberg, 1992, 1995; Green, 1974; Harley, 2003; Hovav & Levin, 2008; Krifka, 2004; Pinker, 1989).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모든 여격 동사가 PDC구문변형이 가능해야 하며, 두 번째 입장에서는 모든 여격 동사가 DOC구문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2)의 예와 같이 동사에 따라 DOC만 가능한 경우(예: 2a-a')와, 반대로 PDC만 가능한 경우(예: 2b-b')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입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2) a. \* Tom bet 10 dollars to Mary.  
 a'. Tom bet Mary 10 dollars.  
 b. Tom explained the answer to Mary.  
 b'. \*Tom explained Mary the answer.

한편, 세 번째 입장인 다중의미접근법에서는 PDC와 DOC를 사용하였을 때 각각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Hovav & Levin, 2008; Krifka, 2004; Pinker, 1989). 예를 들어, PDC는 동사에 의해 수령자에게 대상이 이동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 사용되는 반면, DOC는 수령자에게 대상이 소유되는 의미를 갖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중의미접근법을 따르면서, PDC와 DOC

두 구문이 다 가능한 경우를 ‘여격 교체’(dativ alternation, Krifka, 2004; Levin, 1993), (1)에서 나타난 ‘give’와 같이 두 구문 모두 가능한 동사를 ‘여격 교체 가능 동사’로, (2)에서 나타난 동사 ‘bet’이나 ‘explain’처럼 PDC나 DOC만 가능한 동사를 ‘여격 교체 불가능 동사’라고 명하여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아래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격 교체 현상이 나타날 때 (3a-a')와 같이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여격 구문으로 교체되는 대상자중심 구문과 (3b-b')에서와 같이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수혜자중심 구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여격 구문과 더 유사하며 학습자들에게 더 익숙한 (3a-a')와 같은 대상자중심 구문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 여격 교체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3) a. John gave 10 dollars to Mary.
- a'. John gave Mary 10 dollars.
- b. Tom baked a cake for Ann.
- b'. Tom baked Ann a cake.

## 2. 영어에서 나타나는 여격 교체 제약

여격 교체 제약은 크게 의미론적 관점과 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광의의 의미 제약과 협의의 의미제약(Gropen, Pinker, Hollander, Goldberg, & Wilson, 1989; Pinker, 1989)이 있다. 광의의 의미제약인 광범위 의미규칙(broad range rule)은 소유제약(possession constraint)으로, DO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동사로 인한 동작 이후에 대상자를 소유해야한다는 제약이다. 아래의 문장 (4a)을 보면, PDC는 수령자가 보내진(sent) 대상(a package)의 소유자가 되는가의 제약을 그다지 받지 않는 반면, (4b)에서는 수령자가 사람인 Jane일 때는 대상자의 소유자가 되어 DOC가 가능하나, 수령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London의 경우 DOC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4) a. Bill sent a package to Jane / London.
- b. Bill sent Jane / \*London a package.

반면에, 수령자가 대상을 소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OC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5)를 보면 두 문장 모두 수령자 John이 대상인 (5a)의 the news와 (5b)의 a ball을 소유하는 광의의 의미제약인 소유제약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 (5a)의 동사 tell과 (5b)의 동사 throw의 경우에는 DOC가 가능하고, (5a)의 동사 shout와 (5b)의 carry의 경우에는 DOC가 불가능해 지는 - 현상을 볼 수 있다.

- (5) a. Mary told / \*shouted John the news.

- b. Mary threw / \*carried John a ball. (Y. J. Kim, 2010, p. 24)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Green(1974), Gropen외 3인(1989), Pinker(1989)는 동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여격 교체 여부가 결정되는 협의의 의미제약(narrow range semantic constraint)을 제시하였다. 협의의 의미제약에 따른 동사의 분류는 아래 표 1에 나타나 있다.

**TABLE 1**  
Subclasses Sensitive to the Narrow Range Semantic Constraint

Dativizable subclasses	
Giving	feed, give, hand, lend, loan, pass, pay, sell, serve, trade
Caused autonomous motion	blast, flip, fling, kick, poke, shoot, slap, throw, toss
Sending	mail, send, ship
Continuous causation of accompanied motion in a deictically specified direction	bring, take
Future having	advance, allocate, allot, allow, assign, award, bequeath, forward, grant, guarantee, leave, offer, promise, refer, reserve
Communicated message	ask, cite, pose, quote, read, show, spin, tell, teach, write
Instrument of communication	radio, E-mail, telegraph, wire, telephone, net-mail, fax
Creation	bake, build, cook, fix, knit, make, pour, sew, toss
Obtaining	buy, earn, find, get, grab, order, steal, win
Nondativizable subclasses – Only PDC	
Fulfilling	credit, entrust, present, reward, supply
Continuous causation of accompanied motion in some manner	carry, haul, lift, lower, pull, push, schlep
Manner of speaking	bark, bellow, grunt, murmur, scream, shout, shriek, whisper, yell, yodel
Communication of proposition and propositional attitudes	assert, claim, doubt, question, say, think
Choosing	choose, designate, favor, indicate, pick, prefer, select
Nondativizable subclass – Only DOC	
Malefactive / future not having	ask, begrudge, bet, charge, cost, deny, envy, forgive, fine, refuse, save, spare

Gropen et al. (1989); Levin (1993); Pinker (1989)

표 1에서 보여주는 동사의 분류에 따르면, 위의 문장 (5)에서 tell과 throw는 각각 의사소통(communicated message) 동사, 순간적 유선형 이동(caused autonomous motion) 동사로 여격 교체가 가능하지만, shout와 carry는 각각 소리 전달 양태(manner of speaking) 동사와 지속적인 동반 이동 양태(continuous causation of accompanied motion in some manner)

동사이기 때문에 여격 교체가 불가능하고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의미제약이 충족된다고 해도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여격 교체가 불가능해진다. 예를들어, 협의의 의미제약에 따른다면 아래의 (6)에 나타난 동사들 ‘tell’, ‘report’, ‘explain’은 여격 교체가 가능한 의사소통 동사지만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tell’과 같은 독일어 유래 동사는 여격 교체가 가능한 한편, 형태론적으로 라틴어에서 유래된 ‘report’, ‘explain’과 같은 동사는 아래의 예문 (6)에서 볼 수 있듯이, 여격 교체가 불가능하여 PDC로만 사용될 수 있다.

- (6) a. Bill told / reported / explained the story to them.
- b. Bill told / \*reported / \*explained them the story.
- (Pinker, 1989, p. 45)

이와 같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동사는 re-, de-, pre-, trans-, sub-, ad-, ex-, per-, -fer-, -mit-, -sume-, -ceive-, -duce-, -nounce-, -pel-, -plain 등과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으며(Aronoff, 1976), 형태론적 제약에 의해 여격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영어의 여격 교체 현상은 의미적 제약뿐만 아니라 형태적 제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여격 교체 현상을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상언어인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국어에서는 여격 교체 현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 영어와 한국어 여격 구문의 차이

한국어 여격 구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래의 예 (7)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자는 조사 ‘-이/가’와 함께, 수령자 또는 수혜자는 ‘에게’, 대상자는 ‘-을/를’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7) a. 메리가 탐에게 사과를 주었다.
- [agent] [recipient] [theme] [verb]
- b. 메리가 사과를 탐에게 주었다.
- [agent] [theme] [recipient] [verb]

이러한 한국어의 여격 구문과 영어 여격 구문 간의 차이점을 수동태 구문 형성 가능성과 여격 교체 제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와 한국어의 여격 구문의 수동태형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 여격 구문은 영어의 DOC보다는 PDC에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a. Minswu gave Jenny a letter.
- a'. 민수가 제니에게 편지를 주었다.
- b. Jenny was given a letter.
- b'. \*제니가 편지를 주어졌다.
- c. A letter was given to Jenny.
- c'. 편지가 제니에게 주어졌다.

영어의 경우, PDC에서는 (8c)처럼 대상자 ‘a letter’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반면, DOC에서는 대상자 ‘a letter’가 주어인 수동태 구문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8b)와 같이 수령자 ‘Jenny’가 주어인 수동태 구문만 가능하다. 한국어의 경우, (8a)처럼 여격 구문을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8b)와 같이 수령자가 주어인 수동태 구문은 불가능하지만 (8c)와 같이 대상자가 주어인 수동태 구문은 가능한 것을 보면, 한국어 여격 구문은 대상자가 수동태 구문의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어 PDC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와 영어의 여격 구문은 여격 교체가 가능한 동사의 범위와 제약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여격 동사의 경우에는 ‘주다(give)’, ‘먹여주다(feed)’, ‘가르쳐주다(teach)’ 등 일부동사 외에는 DOC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PDC만 가능한 반면(Whong-Barr & Schwartz, 2002), 영어의 경우에는 여격 교체 제약에 해당되는 일부 동사를 제외하고는 여격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영어 여격 교체 현상에 관여하는 광의의 의미제약, 협의의 의미제약, 형태론적 제약 등이 한국어 여격 구문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Y. J. Kim, 2010; E. J. Moon, 2004).

계속해서 영어와 한국어의 여격 구문과 여격 교체 제약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에 기인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지식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비롯하여 영어 여격 구문에 대해 어떤 이해양상을 보일 것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영어 여격 구문 습득 선행연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여격 구문의 습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경우 모국어 전이현상을 논하고 있으며(H. S. Kim & E. J. Moon, 2004; D. H. Lee, 1997; Y. H. Lee et al, 2015; E. Oh, 2010; E. Oh & Zubizarreta, 2003, 2006; C. Yook, 2012; Whong-Barr & Schwartz, 2002) 여격 교체 현상의 특정 의미적-형태적 제약을 주로 다루고 있다(Y. J. Kim, 2010; E. J. Moon, 2004; E. Oh, 2010; E. Oh & Zubizarreta, 2003, 2006; Whong-Barr & Schwartz, 2002).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모국어 전이에 의한 영어 전치사여격 구문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D. H. Lee, 1997; Y. H. Lee et al, 2015; C. Yook, 2012)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여격 구문 가운데 PDC를 DOC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D. H. Lee, 1997; Y. Lee et al, 2015; C. Yook, 2012). 한국인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모국어 전이현상 관련 연구(Whong-Barr & Schwartz, 2002)와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국어 전이현상관련 연구(E. Oh & Zubizarreta, 2003, 2006)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수혜자 여격 구문보다 대상자 여격 구문을 더 선

호하는 결과를 보였고, E. Oh(2010)는 한국어에서는 뚜렷한 구분이 없지만 영어의 수혜자 구문 내에서 나타나는 소유제 약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용하는 수용양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H. S. Kim 과 E. J. Moon(2004)은 학습자들에게서 한국어의 어순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모국어 전이현상에 근간한 영어 여격 구문 오류에 대해 보고하였다.

한편, 영어 여격 구문의 의미제약에 초점을 두고 시행한 실험연구들 가운데는 한국인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 J. Moon(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연구결과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학습자들의 문법적 민감도가 광의의 의미제약, 협의의 의미제약, 형태론적 제약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 J. Kim(2010)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를 비교하여 영어 여격 교체의 광의의 의미제약인 소유제약과 영어 여격 교체 가능/불가능 동사에 대한 습득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중학생의 경우 여격 교체 가능여부에 상관없이 PDC만을 더 문법적으로 여겼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협의의 의미제약 때문에 PDC만 가능한 경우는 비교적 정확한 문법성 판단을 보였으나 같은 제약으로 DOC만 가능한 동사의 경우나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 여격 동사의 경우 문법성 판단에 오류를 보였다고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능숙도에 따라 영어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한 이해가 다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영어능숙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Y. J. Kim, 2010; E. J. Lee, 2009; E. J. Moon, 2008)가 대부분 이었고, 능숙도가 영어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는 연구(J. E. Jung, 2013)도 있었다. E. J. Moon(2008)의 경우 연령(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영어 여격 교체 동사와 여격 교체 불가능 동사에 대해 더 잘 분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E. J. Lee(2009)의 경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구문의 문법성을 판단하는 실험을 통해 영어능숙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정확하게 문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Y. J. Kim(2010)에서는 영어 여격 교체 제약 별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간에 습득의 정도가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소유 제약의 경우 모든 집단이 해당 제약을 습득하였지만, 협의의 의미제약에 의해 전치사여격 구문만 가능한 경우에는 고등학생 집단만이 해당 제약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영어 여격 구문의 습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방법론적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E. J. Lee, 2009; E. Oh, 2010; C. Yook, 2012)과 이분법적 문법성판단을 이용한 연구(Y. J. Kim, 2010; E. J. Lee, 2009; E. J. Moon, 2004; E. J. Moon, 2008)로 나눌 수 있다.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E. J. Lee(2009)의 경우 문장수용성실험에서 주어진 문장을 읽고 문장의 적합도를 5단계 리커트척도(-2'는 완전히 불가능함, '0'은 잘모르겠음, '+2'는 완전히

가능함)로 판단하게 하였으며, C. Yook(2012)에서 사용된 주요 실험 중 하나도 5단계 리커트척도를 사용한 문장수용성실험이었다. E. Oh(2010)의 경우에는 4단계 리커트척도('1'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음, '4'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음)로 맥락에 소유의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PDC와 DOC의 문법적 수용성이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한편, 이분법적 문법성판단을 이용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각 문장의 문법성을 O, X로 구분하는 연구(Y. J. Kim, 2010; E. J. Lee, 2009)와 PDC와 DOC 중 올바른 구문을 선택하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E. J. Moon, 2004; E. J. Moon, 2008)도 있었다.

앞서 정리된 선행연구들이 여격 교체 현상의 다양한 제약들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와 논의들을 제시하여 학문적 가치를 선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 연구들에 사용된 실험과제와 측정 방법들이 반응값들의 해석이나 결과분석에 제한점이 있는 O, X 선택지(Y. J. Kim, 2010; E. J. Lee, 2009)나 리커트 척도(E. J. Lee, 2009; E. Oh, 2010; C. Yook, 2012) 등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실험들의 방법론적 한계점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문법성 측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법성 측정방법

기존의 문법성/수용성 판단과제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이분법적 정문-비문 분류방법의 문제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여격구문을 표상하는 다양한 문장들은 정문 혹은 비문의 이분법적 분류로 판단할 경우, 해당 문장이 정문 혹은 비문이 되는 다양한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간과될 수 있다. 각각의 요소가 문법성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을 독립변수들로 설정할 때, 단순한 정문-비문(O, X) 판단과제 혹은 참-거짓 판단과제와 같이 이분법적인 명명변수를 종속변수의 값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더 다양한 문법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 혹은 비율변수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분법적 명명변수 대신 다양한 문법성의 스펙트럼을 표현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반응값을 분석하고 있다. 리커트 척도는 특정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성향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문법성'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리커트 척도의 값은 표시된 수치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위치한 단위의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서열변수이자, 각 척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강도를 나타내는 동간변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Y. H. Lee, 2016). 보통 4~7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리커트 척도는 각 단위의 수치가 동간격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되지만, 문법성을 4~7단위로 나눈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부여하는 문법성 척도의 수치는 사실상 동간격을 가정한 것이 아니며, 문법성의 서열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치의 단위를 선택한 반응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로, 이러한 동간-서열척도로 표시된 반응값은 통계적 분석에서도 제한점을 가지게 되는데, 리커트 척도의 반응값들이 정규분포를 가정한 상태에서 ANOVA나 t-검정과 같은 모수검정이 가능한 반면, 사실상 실험연구상의 리커트 척도 반응값들은 정규분포를 좀처럼 보이지 않아 비모수검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Y. H. Lee, 2016).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간-서열척도인 리커트 척도보다 더 세부적인 문법성 정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비율척도 타입의 측정도구가 필요하다(J. H. Kim, Y. H. Lee, & E. Kim, 2015). 하지만 비율척도타입의 측정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법성에 있어서 완전한 비문과 완전한 정문을 가리는 것 외에 중간 단계의 문장들을 구별하여 점수를 부여하라는 과제가 학습자들에게 이론적 개념인 문법성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초래할 수 있어 문법성 중간단계의 문장 비교를 유도하기 힘들다(Schütze & Sprouse, 2013).

이에 본 연구는 Bard, Robertson와 Sorace (1996), Cowart (1997)가 제안하고 Schütze 와 Sprouse (2013)가 재논의한 강도추정(Magnitude Estimation, ME)의 측정방식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문법성을 절대점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차이로 판단하도록 제시해 보고자 한다. ME에서는 문법성 측정선상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기준문장(modulus)으로 두고 그 문장에 비교하여 나머지 문장들이 얼마나 더 문법적인가, 혹은 얼마나 더 비문법적인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기준문장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함으로써, 문법성을 점수로 환산하게 하는 기존의 실험방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테스트효과(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초반에는 문법성 점수를 엄격하게 부여하다가 후반으로 가며 관대해지는 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강도추정의 측정방법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여격 교체의 의미적-형태적 제약에 관한 이해양상과 영어 능숙도에 따른 이해양상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가설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여격 교체의 광의적 의미제약인 소유제약은 보편적 의미-통사 연결 규칙이므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광의의 의미제약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 2) 학습자가 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영어 여격 교체의 협의적 의미제약 또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 3) 영어 여격 교체의 형태론적 제약은 의미적 제약과 무관하며 한국어에는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영어 여격 교체의 형태론적 제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4)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능숙도에 따라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제약하는 의미적-형태적 제약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로 실험집단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영어학습자 60명(평균연령: 23.9세, 범위: 20~30세; TOEIC 성적 평균: 776.2점, 범위: 285~990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수행을 비교하기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화자 10명(연령범위: 25~40세; 한국 거주기간: 평균 8.2년)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유럽 언어공통참고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for Language)과 TOEIC점수 기술서(Proficiency Description Table)를 바탕으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을 TOEIC 성적이 900점 이상인 경우 상위집단, 600점 초과 900점 미만인 경우 중위집단, 600점 이하인 경우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상: 17명, 중: 28명, 하: 15명). 연구참여자들의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B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Experimental Group (n = 60)	Comparison Group (n = 10)
Age	M = 23.9 Range = 20 - 30	M = 34.2 Range = 25 - 40
Proficiency (TOEIC Score)	High (900+): n = 17 Med (600-900): n = 28 Low (600-): n = 15	N/A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N/A	Mean = 8.2 years Range = 1 month - 15 years

####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강도추정(ME)에 기반한 문법성판단검사와 검사 후 설문지(post-test questionnaire survey)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배경과 영어 여격 구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문법성판단검사의 연구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문법성판단검사를 통해 영어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 여격 교체 제약에 따라 표 3에 분류된 것과 같이 다섯 가지 종류의 동사군을 선정하였다.

**TABLE 3**  
Verbs Used in Grammaticality Judgment Task

Type	Verbs
Type1. Verbs with dative alternation	give, send, show, tell, throw
Type2. Verbs with dative alternations without satisfying possessive constraints <sup>1</sup>	send, throw
Type3. Verbs with no dative alternation (PDC only)	pull, push, say, shout, whisper
Type4. Verbs with no dative alternation (DOC only)	bet, envy, save
Type5. Verbs of Latinate constraints (PDC only)	demonstrate, donate, explain, report

실험의 주 과제로 실시한 강도추정검사를 이용한 문법성판단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학습자)들은 주어진 기준문장(modulus; a reference sentence)<sup>2</sup>과 비교문장을 읽고 기준문장을 문법성판단선의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을 기준문장의 문법성과 비교하여 0mm에서 100mm사이의 문법성판단선에 문법성 정도를 판단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표문장이 기준문장보다 덜 문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문법성판단선에서 기준문장보다 왼쪽에,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기준문장보다 오른쪽에 표시하게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의 문법성 표기의 예가 그림1에 나타나있다. 실험진행자는 피험자들에게 기준문장과 목표문장의 문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관을 통해 판단하라고 지도하였으며, 문법성 판단 결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이 새로운 평가 방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예시 문항을 제시하였다.

Tom read a story Mary.	_____X_____	기준문장
a. Tom goed to school.	_____X_____	참여자의 평가
b. Mary watches.	_____X_____	참여자의 평가
c. Jane noticed Mary Mistake.	_____X_____	참여자의 평가
d. Tom reads a story about Mary.	_____X_____	참여자의 평가

**FIGURE 1** The Examples of ME

문법성판단검사에 사용된 문항은 총 110문항으로 목표문장(target sentences) 76문항, 비목표문장(fillers) 3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전체 문장은 부록에 포함하였다. 아래의 예 (9a), (9c)와 (9b), (9d)에 나타난 것 같이 목표문장은 동사 당 2개의 토큰을 사용하고, 각각 (9a), (9c)와 같은 PDC와 (9b), (9d)와 같은 DOC를 사용하여 4종류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Type2, Type3, Type5 문장의 경우 PDC만 가능하고, Type4의 경우 DOC만 가능하지만, 학습자가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DC와 DOC를 모두 포함하여 문법적-비문법적 실험문장들을 구성하였다.

<sup>1</sup> 동사 'send'와 'throw'의 경우 Type1과 Type2에 모두 사용되었으나, 문맥을 통해 소유의 의미를 가진 경우와 소유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sup>2</sup> 기준문장은 10개의 영어 여격 구문 관련 문장들을 본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10명의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모의실험 형식으로 제시하여, 주어진 10개의 문장들 중 학습자들이 중간정도의 문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문장(1에서 10까지의 점수 중 평균 5점 가량을 받은 문장)을 사용하였다.

- (9) a. Jane gave a pencil to John.
- b. John gave Mary a pencil.
- c. Bill gave flowers to Tom.
- d. Tom gave Ann flowers.

### 3. 자료 분석

검사 자료의 분석은 SSPS를 활용하여 신뢰도 유의수준 95%(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강도추정검사를 사용한 문법성판단검사는 0mm에서 100mm사이의 문법성판단선에서 50mm위치에 있는 기준문장은 '0'으로 둔 뒤, 기준문장으로 부터 연구참여자가 표시한 곳까지의 측정된 길이를 문법성판단점수로 하여, 참가자의 반응들을 z-점수로 변환하였다. 원어민과 학습자의 평균 비교와 한국인 학습자들 내에서 능숙도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강도추정을 사용한 문법성판단검사에 대한 결과

영어능숙도에 따른 한국인 영어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의 동사유형과 여격구문(PDC, DOC)에 대한 문법성판단검사의 전반적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TABLE 4**  
Results of Grammaticality Judgment Task

Verb types	construction	proficiency	M	SD	n	
Type1	PDC	Low	0.27	0.95	149	
		Intermediate	0.66	0.73	280	
		High	0.58	0.73	168	
		Learners	0.57	0.81	597	
		Native	0.90	0.64	100	
		DOC	Low	-0.42	0.98	150
	DOC	Intermediate	0.22	0.92	279	
		High	0.33	0.83	170	
		Learners	0.12	0.97	599	
		Native	0.94	0.62	99	
		PDC	Low	0.21	0.95	59
			Intermediate	0.64	0.72	112
High	0.57		0.75	68		
Learners	0.54		0.81	239		
Native	0.45		0.84	40		
*DOC	Low		-0.89	0.97	60	
	Intermediate	-0.96	0.80	112		
	High	-0.92	0.70	68		
	Learners	-0.91	0.83	240		
	Native	-0.77	0.89	40		

Type3	PDC	Low	0.18	0.92	150
		Intermediate	0.50	0.76	279
		High	0.33	0.82	170
		Learners	0.40	0.84	599
		Native	0.54	0.87	100
*DOC	PDC	Low	-0.77	0.95	150
		Intermediate	-0.52	0.9	277
		High	-0.49	0.84	170
		Learners	-0.55	0.91	597
		Native	-0.53	0.87	100
*PDC	PDC	Low	-0.51	1.05	90
		Intermediate	-0.21	0.92	166
		High	-0.40	0.90	101
		Learners	-0.32	0.96	357
		Native	-0.89	0.64	60
DOC	PDC	Low	-0.69	0.99	89
		Intermediate	-0.47	0.84	167
		High	-0.50	0.84	102
		Learners	-0.51	0.89	358
		Native	0.06	0.98	60
PDC	PDC	Low	-0.02	0.99	120
		Intermediate	0.46	0.81	223
		High	0.41	0.77	136
		Learners	0.35	0.87	479
		Native	0.46	0.91	80
*DOC	PDC	Low	-0.59	1.00	120
		Intermediate	-0.17	0.92	224
		High	-0.05	0.81	135
		Learners	-0.22	0.94	479
		Native	-0.55	0.70	80

Note. The mark \* indicates that the sentence is ungrammatical.

문법성판단검사의 전반적인 결과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문법성과 상관없이 모든 문장 유형에서 이중목적어 구문(DOC)보다 전치사여격 구문(PDC)의 문법성판단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격 교체가 가능하나 광의의 의미제약인 소유제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Type2의 문장에 대해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과 원어민화자들이 모두 DOC를 PDC에 비해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PDC: 원어민 평균 = 0.45, 학습자 평균 = 0.54; DOC: 원어민 평균 = -0.77, 학습자 평균 = -0.91).

셋째, 협의의 의미제약으로 PDC만 가능한 Type3의 문장에 대해서도 한국인 영어학습자들과 원어민 화자들이 유사한 반응 패턴을 기록하였다(PDC: 원어민 평균 = 0.54, 학습자 평균 = 0.40; DOC: 원어민 평균 = -0.53, 학습자 평균 = -0.55). 반면, 협의의 의미제약으로 DOC만 가능한 Type4의 문장에 대해서는 원어민 화자들은 DOC를 PDC보다 더 문법적이라 판단한 반면(PDC: 평균 = -0.89, DOC: 평균 = 0.06),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여전히 PDC를 DOC보다 더 문법적이라 판단하는 오류를 보였다(PDC: 평균 = -0.32, DOC: 평균 = -0.51).

한편, 형태론적 제약으로 DOC가 불가능한 Type5의 문장에 대해서는 원어민화자들과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모

두 PDC를 더 문법적이라 여기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다른 비문법적인 Type2의 DOC(평균 = -0.91), Type3의 DOC(평균 = -0.55)보다 Type 5의 DOC(평균 = -0.22)를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모든 능숙도 집단은 문법성에 상관없이 PDC를 DOC보다 문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위 집단은 Type2를 제외한 동사유형에서 다른 집단보다 DOC를 더 비문법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였으며, Type5의 경우 하위 집단은 문법적인 PDC 또한 비문법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보였다.

정규분포를 보이는 반응값들을 모수통계를 사용한 삼원 분산분석(three-way ANOVA)으로 분석한 결과, Levene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결과가  $p < .05$ 이므로, Dunnett T3로 동사유형에 대한 사후 검정(post hoc)을 실시하였다. 영어능숙도에 따른 한국인 영어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의 문법성 판단 검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동사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39,4) = 140.53, p < .05$ ),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Type2와 Type3간 차이(평균 차 = -3.23,  $p > .05$ )를 제외한 모든 동사유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격 구문( $F(39,1) = 578.53, p < .05$ ), 능숙도( $F(39,3) = 41.91, p < .05$ )의 주효과가 있었다. 상호작용 효과는 동사유형과 여격 구문( $F(39,4) = 76.29, p < .05$ ), 동사유형과 능숙도( $F(39,12) = 7.21, p < .05$ ), 여격 구문과 능숙도( $F(39,3) = 6.92, p < .05$ ), 동사유형 및 여격 구문과 능숙도( $F(39,12) = 6.35, p < .05$ )에서 나타났다.

## 2. 연구가설 검증과 논의

문법성판단검사 결과를 연구문제와 가설들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패턴의 결과를 보였다.

먼저, 한국인 학습자들은 모든 문장유형에서 PDC를 DOC보다 더 문법적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여격 교체가 가능한 Type1의 문장에 있어서 한국인 학습자들의 반응은 PDC(평균 = 23.03)를 DOC(평균 = 10.67)보다 더 문법적이라 판단하고 있는 반면,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반응은 DOC(평균 = 34.11)을 PDC(평균 = 32.87)보다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했다.

가설1에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의의 의미제약인 소유제약을 위반하는 Type2 동사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이 원어민화자들의 반응과 유사하였다. 또한, 여격 교체 관련 추가 설문지 문항에서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은 소유제약을 충족하는 아래의 문장 (10a)와 소유제약을 위반하는 (10b)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사 send가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령자 위치에 사람(유생물)이 오는 것이 적절하며, 수령자와 대상의 위치를 바꾸어 'John sent a letter to New York.'로 전치사여격 구문을 사용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10) a. Tom sent Mary flowers.
- b. \*John sent New York a letter.

이를 종합하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여격 교체 제약 중 광의의 의미제약인 소유제약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설2에 해당하는 Pinker(1989)에 따른 협의의 의미제약을 위반하는 Type3과 Type4의 문장들에 대해서는 원어민과는 다르게 한국인 학습자들이 일괄적으로 PDC를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한 하였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협의의 의미제약을 일부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PDC에 대한 선호도가 Type3과 Type4 같은 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로 볼 때, 학습자들은 협의의 의미제약으로 DOC만 가능한 Type4의 동사들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Type3에서 원어민과 유사한 반응패턴을 보인 것도 사실은 PDC를 DOC 보다 더 선호하다 보니 상기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여격 교체 제약 중 협의의 의미제약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잠정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sup>3</sup>

한편, 가설3과 관련된 결과를 제시하자면, 영어 여격 교체 제약 중 라틴어에서 유래된 동사로 형태론적 제약에 의해 PDC만 가능한 Type5의 경우, 문법성판단검사에서 학습자들은 PDC에 DOC보다 더 높은 문법성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마치 학습자들이 형태론적 제약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학습자들의 반응이 PDC를 DOC 보다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했고, Type5의 DOC에 대한 문법성판단점수가 Type2, Type3의 비문법적인 DOC 보다 더 높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라틴어 유래동사 ‘donate’의 경우에는 PDC에 대한 문법성판단점수(0.18)보다 DOC에 대한 문법성판단점수(4.87)가 더 높은 것을 보면, 학습자들이 형태적인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격 교체에 관한 추가 설문지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여격 교체가 가능한 아래의 (11a)의 문장과 형태론적 제약에 의해 PDC만 가능한 (11b)의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 동사 ‘demonstrate’가 동사 ‘show’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DOC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학습자들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에 대한 여격 교체의 형태적 제약의 측면에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PDC에 대한 선호도의 영향과 더불어 개별 동사의 특성에 따라 문장들에 다른 문법성 점수를 부여

했다고도 볼 수 있다.

- (11) a. Jane showed Ann a picture.
- b. \*Bill demonstrated Ann new invention.

그러므로 이 결과에 대해 학습자들이 형태론적 제약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설 3을 기각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형태론적인 제약에 대한 지식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4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영어능숙도와 수행패턴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영어능숙도와 상관없이 모든 동사 유형에서 PDC를 DOC보다 더 문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영어능숙도가 낮을수록 더욱 두드러졌는데, 하위 집단의 경우에는 심지어, Type1의 문법적인 DOC 문장을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상위 집단의 경우 PDC를 DOC보다 선호하는 한국인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였으나 그 정도가 하위집단보다 덜하였으며, Type4를 제외하고는 동사유형에 맞는 구문을 문법적으로 판단하였다. 협의의 의미제약에 의해 PDC가 비문법적인 Type4의 경우에는 모든 능숙도 집단에서 DOC를 문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하위집단은 형태론적 제약에 의해 PDC만 가능한 Type5에서 문법적인 PDC를 비문법적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능숙도 집단이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적 제약 중 하나인 Type4를 제외하고는 영어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해 영어능숙도가 높은 집단이 영어능숙도가 낮은 집단보다 해당 제약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통해 영어능숙도에 따라 영어 여격 교체 현상을 제약하는 의미적-형태적 제약을 이해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별동사에 따라서도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다른 수행패턴을 보였는데, 영어 여격교체 제약에 따라 같은 동사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개별 동사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사 ‘give’의 DOC의 문법성 점수(17.98)가 여격 교체가 가능한 다른 Type1동사들의 DOC의 평균 문법성 점수(8.86) 보다 높았다. 또한 동사 ‘pull’의 경우 문법적인 PDC의 문법성 점수(7.58)가 협의의 의미제약에 의해 전치사여격 구문만 가능한 Type3 동사들의 PDC의 평균 문법성 점수(21.06)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같은 유형의 동사라도 각 동사의 특징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개별 동사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에 사용될 동사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sup>3</sup> 이 논의를 체계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의미제약에 대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결과 중 Type3에 대한 결과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해당 제약을 이해한 결과인지 전치사여격 구문의 선호도 때문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Type4의 경우 연구에 사용된 동사에 의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응답이 달라졌는지 등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여격 구문 중 PDC와 DOC에서 나타나는 여격 교체 현상의 제약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문제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여격 교체가 가능한 동사, 광의의 의미제약인 소유제약을 충족하지 못해 PDC만 가능한 경우, 협의의 의미제약으로 두 구문 중 한 종류만 가능한 동사, 라틴어에서 유래된 동사에 대한 형태론적 제약으로 PDC만 가능한 동사로 여격 동사로 5가지 동사유형을 선정하고 강도추정검사방법을 이용한 문법성판단검사를 통해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 60명과 영어 원어민 화자 10명의 지식을 조사해 보았다. 전반적인 결과는 i)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전반적으로 DOC보다 PDC를 선호하여 더 문법적이라고 간주하며, ii) 보편적 의미-통사연결 규칙인 광의의 의미 제약인 소유제약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iii) Pinker(1989)의 협의의 의미제약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iv) 라틴어에서 유래된 동사에 대한 형태론적 제약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는 이를 이해한 것처럼 보이나, 타 문항들과의 비교 반응패턴과 추가 설문지의 반응들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제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들의 PDC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 문법성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위해서는 추가적 후속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마지막으로 영어 여격 교체 제약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어능숙도가 높은 집단이 영어능숙도가 낮은 집단보다 영어 교체 제약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격 구문 가운데 대상자중심 여격 구문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수혜자중심 여격 구문도 유사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문법성판단검사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의 정문을 만드는 여격 구문에 대한 다면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문법성판단검사만으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여격 교체 제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PDC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실제적으로 언어 산출의 상황에서 표출되고 있는지 등의 자세한 양상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언어 산출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 전이현상에 의한 PDC를 선호하는 경향이 전반적인 문장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실험참가자들이 여격 구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사전실험단계를 거쳐 실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문법성판단검사 이외에 선호도검사나 오류가 있는 문장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과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여격 교체 제약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리커트 척도의 분석법을 강도추정검사로 대체하여 사용한 결과, 반응값의 비올변수화가 초래한 반응값 차이의 세부화로 인해 실험참가자들의 반응이 정규분포 범위에 속하게 되어 통계분석이 용의했다. 이는 문법성의 개념을 절대점수와 같은 단위로 나누어 판단하게 하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기준문장에 대한 실험문장들의 상대적 문법성을 학습자 개인이 느끼는 강도의 차이로 판단하게 하는 강도추정검사가 실험참가자들에게 더 일관성 있고 유사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실험문장들을 사용한 상태에서 리커트 척도와 강도추정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각각 사용한 실험의 결과가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지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교육적 암시는 다음과 같다. 영어 여격 교체 제약의 종류에 따라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다른 정도의 이해수준을 보였으며, 여격 교체 제약이 갖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PDC만을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지식에 기반하여 영어 여격 구문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어 여격 구문을 학습자들에게 교수할 때 여격 교체의 규칙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PDC와 DOC가 사용되는 상황을 각각 제시하고, 여격 교체 제약과 해당 제약에 대한 예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학습에 병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능숙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DOC구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해당 구문에 대한 노출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Aoun, J., & Li, Y. H. A. (1989). Scope and constituency. *Linguistic Inquiry*, 20(2), 141-172.
- Bard, E. G., Robertson, D., & Sorace, A. (1996). Magnitude estimation of linguistic acceptability. *Language*, 72(1), 32-68.
- Beck, S., & Johnson, K. (2004). Double objects again. *Linguistic Inquiry*, 35(1), 97-123.
- Chomsky, N. (197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New York: Plenum press.
- Cowart, W. (1997). *Experimental syntax*. London: Sage.
- Fillmore, C. J. (1965). *Indirect object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ordering of transformations*. The Hague: Mouton.
- DeKeyser, R. M. (2005). What makes learning second-

- language grammar difficult? A review of issues. *Language Learning*, 55(S1), 1-25.
- Goldberg, A. E. (1992). The inherent semantics of argument structure: The case of the English ditransitive construction. *Cognitive Linguistics*, 3(1), 37-74.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een, G. M. (1974). *Semantics and syntactic regular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Gropen, J., Pinker, S., Hollander, M., Goldberg, R., & Wilson, R. (1989). The learnability and acquisition of the dative alternation in English. *Language*, 65(2), 203-257.
- Harley, H. (2003). Possession and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P. Pica & J. Rooryck (Eds.),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 (pp. 31-70). Amsterdam: John Benjamins.
- Hollmann, W. (2007). From language-specific constraints to implicational universals: A cognitive typological view of the dative alternation. *Functions of Language*, 14(1), 57-78.
- Hovav, M. R., & Levin, B. (2008).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The case for verb sensi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44(1), 129-167.
- Inagaki, S. (1997). Japanese and Chinese learners' acquisition of the narrow range rules for the dative alternat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47(4), 637-669.
- Jung, Joo-Eun. (2013).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dative verb constructions among Korean EFL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ee-Sook, & Moon, Eun-Joo. (2004). Acquisition of dative construction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 76-83.
- Kim, Ji-Hye, Lee, Yong-Hun, & Kim, Eunah. (2015). Obligatory control and coordinated deletion as Korean subject diagnostics: An experimental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19(1), 75-101.
- Kim, Yoon-Ja. (2010). *A study on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s by Korean secondary school EFL learn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dative construc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rifka, M. (2004). Semantic and pragmatic conditions for the dative altern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1), 1-32.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 335-391.
- Larson, R. K. (1991). Promise and the theory of control. *Linguistic Inquiry*, 22(1), 103-139.
- Lee, Dong-Han. (1997). *Acquisition of dative alternation in English by second language learn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outh Carolina.
- Lee, Eun-Joo. (2009). *A study on acquisition of dative alternation in English b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Yong-Hun. (2016). *Corpus linguistics and statistics with R*. Seoul: Hankookmunhwasa.
- Lee, Yong-Hun, Yook, Cheongmin, Lee, Bomi, & Park, Yeonkyung. (2015). Factors involved in Korean EFL learners' choice of English dative constructions. *English Teaching*, 70(4), 139-160.
- Moon, Eun-Joo. (2004). The role of semantic constraints in L2 acquisition of dative constructions. *English Teaching*, 59(1), 127-145.
- Oh, Eunjeong. (2009). Transfer of morphology revisited. *Language and Linguistics*, 44, 127-160.
- Oh, Eunjeong. (2010). Recovery from first-language transfer: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English double objects by Korean speakers. *Second Language Research*, 26(3), 407-439.
- Oh, Eunjeong, & Zubizarreta, M. L. (2003). Does morphology affect transfer? The acquisition of English double objects by Korean native speakers. In A. Burgos, L. Micciulla, & C. Smith (Eds.),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pp. 402-413). Boston: Cascadilla Press.
- Oh, Eunjeong, & Zubizarreta, M. L. (2006). Against morphological transfer. In K. U. Deen, J. Nomura, B. Schulz, & B. D. Schwartz (Eds.), *University of Connecticu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4 (pp. 261-272). Storrs, CT: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Connecticut.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Radwan, A. A. (2005). The effectiveness of explicit attention to form in language learning. *System*, 33(1), 69-87.
- Schütze, C., & Sprouse, J. (2013). Judgement data. In Robert Podesva & Devyani Sharma (Eds.), *Research methods in linguistics* (pp. 2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Jeong-Ah. (2015). L2 structural generalizations through structural prim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6(2), 25-43.
- Whong-Barr, M., & Schwartz, B. D. (2002). Morphological and syntactic transfer in child L2 acquisition of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SSLA*, 24, 579-616.
- Yook, Cheongmin. (2012). L1 influence on ESL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ditransitive constructions. *English Teaching*, 67(2), 27-50.

부록

Sentences Used in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Type	Sentences	
<b>Modulus</b>	<b>Tom put flowers in the table.</b>	
Type1	Jane gave a pencil to John.	John gave Mary a pencil.
	Bill gave flowers to Tom.	Tom gave Ann flowers.
	Ann sent flowers to Tom	Tom sent Mary flowers
	Tom sent an e-mail to Jane.	Bill sent Jane an e-mail.
	Tom showed a picture to Jane.	Jane showed Ann a picture.
	Mary showed a bike to John.	John showed Tom a bike.
	Mary told a story to Bill.	Tom told John a story
	Jane told the truth to Ann.	John told Jane the truth.
	Jane threw an apple to Mary.	John threw Ann an apple.
Type2	Tom threw a jacket to Bill.	Bill threw Jane a jacket.
	Jane sent a letter to New York.	*John sent New York a letter.
	Bill sent a package to London.	*Ann sent London a package.
	Tom threw the ball to the tree.	*Ann threw the tree the ball.
Type3	Bill threw an egg to the wall.	*John threw the wall an egg.
	John pulled a chair to Jane.	*Jane pulled John a chair.
	Bill pulled a door to Ann.	*Tom pulled Mary a door.
	John pushed a box to Jane.	*Jane pushed John a box.
	Bill pushed a sofa to Ann.	*Tom pushed Mary a sofa.
	Tom said hello to Jane.	*John said Mary hello.
	Mary said goodbye to Tom.	*Jane said Ann goodbye.
	Jane shouted the news to Mary.	*Tom shouted Mary the news.
Type4	Mary shouted an order to John.	*John shouted Jane an order.
	Tom whispered the secret to Ann.	*Jane whispered Tom the secret.
	Jane whispered the answer to Mary.	*Tom whispered Mary the answer.
	* Mary bet ten dollars to Bill.	Tom bet Mary ten dollars.
	* Jane bet one million won to Ann.	John bet Tom one million won.
Type5	* Jane envied Tom's luck to him.	Mary envied Tom his luck.
	* John envied Ann's success to her.	John envied Mary her success.
	* Bill saved much time to Mary.	John saved Ann much time.
	* Ann saved much trouble to Tom.	Jane saved Bill much trouble.
	Tom demonstrated new invention to Jane.	*Bill demonstrated Ann new invention.
	John demonstrated new software to Mary.	*Jane demonstrated John new software.
Type5	Jane donated a painting to Tom.	*John donated Mary a painting.
	Ann donated a dictionary to John.	*Bill donated Ann a dictionary.
	Tom explained the rules to John.	*John explained Ann the rules.
	Ann explained the details to Bill.	*Mary explained Tom the details.
	Tom reported the change to John.	*John reported Ann the change.
Ann reported the results to Bill.	*Mary reported Tom the results.	

Note. The mark \* indicates that the sentence is ungrammatical.